

추석 연휴 제주 하늘길 오히려 줄었다

23~27일 제주기점 하루 운항편수 전년비 8편 감소
 임시편도 18편 그쳐... 김포→제주 23~24일은 마감
 '항공좌석 안정화 TF' 꾸린 위 도정 대응 능력 도마

제주특별자치도가 심각한 제주기점 항공노선 좌석 공급 안정화에 나서고 있지만 다가오는 추석 연휴 운항편수가 줄어들면서 좌석난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위성곤 지사 주재로 지난달 민생경제 상황실 관광분야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는 국내선 항공 좌석과 내국인 관광시장 회복을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추석 연휴가 터닝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국내선 항공 공급

회복과 가을 관광수요 선점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제주 항공좌석 공급 안정화 TF'까지 만들어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올해 추석 연휴 제주기점 항공노선 운항편수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줄었고 항공사의 임시편 투입도 형식적 대응 수준에 머물고 있다.

15일 한국공항공사제주공항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

일간 제주기점 운항편수는 국제선 포함 1일 평균 510편이다. 1일 평균 8만7600여명이 제주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운항편수는 지난해 1일 평균 518편에서 8편 줄었다.

추석 연휴기간 시간당 최대 35회의 슬롯이 배정된 횡수도 대체 공휴일 등으로 연휴가 길어 탑승객이 분산됐던 지난해 10월 4일부터 7일까지 6회에서 올리는 절반 수준인 3회에 불과하다. 임시편 투입도 고작 18편뿐으로 제주자치도의 대응이 무색할 정도의 수준이다.

특히 김포-제주 노선의 경우 추석 연휴 초반인 23일부터 24일까지 예약이 조기 마감되면서 제주에 오려고 해도 올 수 없는 상황이다. 제주자치도가 내국인 관광객 유치

내세웠지만 항공편수 자체가 줄면서 수요를 따라잡지 못해 제주노선의 항공편 가격은 편도 13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을 넘어서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제주자치도는 추석 연휴 기간 제주노선의 임시편 투입 여부조차 모르고 있는 데다 개별 항공사별 임시편 투입도 공문으로 요청하는 형식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제주공항 관계자는 "현재까지 추석 연휴 1일 평균 슬롯은 28~35회로 아직까지 여유가 있지만 슬롯 여유가 바로 운항 가능 여부로 연결할 수 없다"면서도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있을 경우 운항 가능한 슬롯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추석 맞이 '원도심 세일페스타' 연다
 중앙로·칠성로상점가·중앙지하사가 3곳 분산 개최
 상점가별 특색 살린 경품이벤트·체험·버스킹 다채

제주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19일부터 10월 3일까지 원도심 주요 상권 일대에서 '원도심 세일페스타'를 개최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제주원도심활성화자율상권조합과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원도심상권활성화사업과 연계한 소비촉진 행사로 중앙로상점가, 중앙지하사가, 칠성로상점가에서 각각 진행된다. 사업비는 상점가별로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 상당이다.

해당 상권들은 저마다의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국내외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로 원도심 방문을 유도하고 상권에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

중앙로상점가는 19일 제주중앙성당 부근에서 동아리 경연대회, 물품 구매 영수증 이벤트, 체험부스 등을 운영한다.

중앙지하사가는 오는 26~27일 지하사가 일원에서 한복 노리게 만들기 체험, 버스킹 공연, 물품 구매 영수증 환급 행사를 마련한다.

칠성로상점가는 오는 10월 3일 관덕로13길 차 없는 거리 일원에서



제주시 칠성로상점가의 '칠성로 굿데이 페스타' 모습. 제주시 제공

브랜드 부스와 체험 부스 운영, 공연, 물품 구매 영수증 이벤트(경품 추첨) 등을 계획하고 있다.

제주원도심활성화자율상권조합의 원도심상권활성화사업은 제주시원도심자율상권구역(일도1동, 이도1동, 삼도2동 일원 12만㎡)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해 시작해 2029년까지 5년간 진행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100억원(국비 50%, 도비 50%) 규모다.

주요 사업 내용은 로컬커뮤니티센터 조성, 이정표 설치, 공실사업 등 환경개선사업과 세일페스타, 쿠폰 발행, 순환버스 운행 등 상권 활성화 및 조직 운영 등이다.

올해 2년차 사업비는 20억원이며 내년에는 20억5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백영탁기자 haru@ihalla.com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내달 22일 제주 국정감사

국토위는 헬스케어타운 시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전체 회의를 열고 2026년 국정감사 계획표를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광역자치체 감사 대상으로 제주특별

자치도 등을 선정하고 내달 22일 제주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제주 도정을 점검할 예정이다.

다만, 민선 9기 위성곤 지사가 취임한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만큼 전임 도정에서 진행된 사업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전임 도정에서 추진된 '혈세 낭비'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제주-청다오 항로 문제가 대표적이다. 위 도정의 경우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관련 논란 등이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제주 국감에서는 제주경찰청에 대한 감사도 예정돼 있

어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제주 경찰의 실종사건 허위 종결 문제 등에 대한 국회의 송곳 점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교통위원회는 내달 20일 장기 휴양 중인 제주헬스케어타운 및 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중단 부지에 대한 현장 시찰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부미현기자



추석 앞둔 제주 명품 '육돔' 15일 제주시 한림항 공한지에서 어민들이 가을 햇살을 맞으며 추석선물용 육돔을 말리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바다와 함께하는 행복한 그림

제4회 제주바다 그리기 대회
 오는 19일 이호테우해수욕장
 17일 오후 6시까지 사전 접수

제주의 푸른 바다가 모두의 도화지에 담긴다. 아이, 어른 누구나 행복하길 바라며 올해로 4년째 문을 여는 '제주바다 그리기 대회'다.

한라일보가 주최·주관하는 '제4회 제주바다 그리기 대회'가 오는 19일 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에서 열린다.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개발공사, K-water한국수자원공사, 부영그룹이 후원한다.

대회는 제주바다를 그림에 담으며 바다를 비롯한 자연환경의 중요

성을 생각해 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바다와 관련된 주제라면 무엇이든 그림으로 표현하면 된다. 여기에 모두가 행복하길 바라는 뜻도 더해졌다. '그리기 대회'라는 이름에도 1·2·3등처럼 순위를 매기지 않는 '모두가 주인공'인 대회다. 최선을 다해 그림을 그린 모두에게 대회 이후 우편을 통해 상장이 전달된다.

참가 대상은 유치원생과 초·중·고생, 성인(학부모) 등이다. 사전 참가 접수는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사전 접수자에겐 소정의 기념품이 주어진다.

대회는 당일 오후 1시부터 시작

된다. 개회식이 끝나면 도화지를 배부 받은 뒤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면 된다. 마감 시간은 오후 5시이며, 이전까지 완성작을 제출하면 된다.

대회장에는 도화지는 물론 크레파스가 준비된다. 이 외에 화판, 물감, 연필, 지우개 등 필요 도구는 개인이 지참해야 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부대 행사로는 '풍선 아트'가 진행된다.

사전 접수 문의는 한라일보(064-750-2543, 2291)로 하면 된다. 주최 측은 행사 당일 주차장이 혼잡할 것에 대비해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하고 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제21회

수산업경영인대회

제주 바다의 가치, 수산업의 미래를 잇다

2026. 9. 28. 월

한림종합운동장 한림체육관
 한림중앙로 71-9

2027년, 한국 수산업의 든든한 주역인 전국 수산업경영인들이 제주에 모입니다.
 '제16회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주최 | (사) 한국수산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주관 | (사)한국수산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후원 | 제주특별자치도